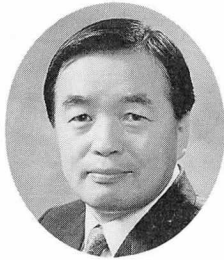


# 돼지띠 해의 돼지 이야기



정 영 철 박사  
(정 P&C 연구소장)

돼지는 12지(支)의 열두번째 동물이다. 돼지해는 육십갑자에서 을해(乙亥), 정해(丁亥), 기해(己亥), 신해(辛亥), 계해(癸亥) 등 다섯번 드는데, 을해 1995년은 을해(乙亥)년으로 을해의 수호동물은 돼지인 것이다.

돼지의 역사는 길다. 화석으로 추적한 결과를 보면 지구상에 약 4천만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개와 함께 가장 먼저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순치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부 계림지방에서 기원전 약 1만년 전에 사람뼈가 출토되었는데, 여기에 순치된 돼지의 뼈가 함

께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한국에서도 석기시대의 유적지인 평남 검은모루동굴, 청원도루봉제2굴 등지에서 멧돼지의 화석이, 부산의 동산동 조개무지에서 멧돼지모양의 토우가 발견되고 있어서 멧돼지가 한반도 전역에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많은 돼지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던 기록이 있다. 중국 삼국지(三國志)의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부여사람들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죽

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 겨울철에는 돼지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제주도(州胡)에서는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약 2천년 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재래종 돼지는 흑색으로 몸이 작고, 주둥이가 길며 체질이 강건한 장점이 있으며 경북 김천의 지례돈과 경남 사천의 사천돈, 제주도의 멧통돼지가 유명하다. 재래종이 귀해진 요즘 지금 많이 키우는 서양종보다 재래종의 고기가 맛이 더 좋다는 것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돼지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전해진다. 고구려와 고려는 돼지 때문에 도읍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유리왕 시절 하늘에 제물로 바칠 예정이던, 제사 돼지가 도망을 가서 그 돼지를 쫓아가서 발견한 장소가 지형이 험하고 땅이 비옥하고 물고기가 많아서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국내성이었다는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왕건의 조부는 돼지의 안내로 개성

송악산 아래에 집비를 잡고 여기에서 왕건이 출생하고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또한 길조를 나타내고 재산이나 복의 근원으로서 재산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된다. 꿈에 돼지를 보면 대단한 길조로 간주하고 돼지 꿈은 용꿈과 함께 길몽의 쌍벽을 이룬다.

특히 설화에서는 돼지가 재산을 몰고 오고 재산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상징하는데 그 전형적인 이야기는 전라도에서 유래하였다.

어느날, 주인의 눈에만 보이는 돼지 한마리가 집에 들어왔다. 10년만에 그 집안은 천석 갑부가 되고, 주인의 벼슬도 높아졌다. 그러다가 어느날, 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주인은 곧 망할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돼지들이 엽총 사냥꾼들을 유인해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였다. 마침 그날 밤에 닥친 때 강도들을 엽총사냥꾼들이 물리쳐 그 집안의 재물을 보호하고 수호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옛날 잘 사는 사람이 적선(積善)하는 수단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돼지새끼 한마리씩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다.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중 한마

66

서양에서도 돼지는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어로 저금통을 Piggy bank(직역하면 돼지은행)라고 한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장소인 뉴욕의 금융가 월 스트리트(Wall Street)도 옛날에 하도 돼지가 옥수수 밭을 망가뜨려서 세운 담벼락이 있었던 이름이 그대로 남아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돼지가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것이다.

99

리를 상환하는 조건부다. 그렇게 상환하는 돼지 새끼는 다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수혜범위를 확대해 갔다고 한다.

돼지의 그림은 번창의 상징이며 부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장사하는 집에서는 곧잘 문설주에 돼지그림을 붙였다. 돼지가 한배에 여러 마리씩 새끼를 낳고 잘 먹고 잘 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은 오늘날의 저금통을 돼지저금통이라고 부르는데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돼지는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어로 저금통을 Piggy bank(직역하면 돼지은행)라고 한다. 또, 호화스럽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Living high off the hog” (돼지를 팔아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장소인 뉴욕의 금융가 월 스트리트(Wall Street)도 옛날에 하도 돼지가 옥수수 밭을 망가뜨려서 세운 담벼락이 있었던 이름이 그대로 남아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돼지가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것이다.

돼지는 머리끝에서부터 꼬리까지 인간이 쓰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 “꿀꿀”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산물인 돼지고기 외에 피, 창자, 심장 등의 부산물에서 약 40여종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또한 40여종의 화학 및 공업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돼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여 당뇨병자에게, 돼지의 피부는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이식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돼지의 심장판막은 1971년 첫번째 심장환자에게 대

체이식이 성공된 후 수만명의 생명을 건졌다. 돼지기름은 살충제, 제초제 또 크레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나 최근에는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돼지에게 주입하므로써 돼지가 인간의 피를 생산하고 인간의 신체가 거부하지 않는 심장과 콩팥의 생산이 실현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돼지는 인체 의료용 생산품을 주산물로, 부산물로 고기를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 될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또한 인체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품이다. 다른 육류보다 인(P)의 성분이 높아서 칼슘이 많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어린이들의 뼈를 튼튼히 하여

발육을 촉진하는 것이다. 뼈의 주성분이 칼슘과 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계를 벗겨낸 돼지고기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생선 못지 않은 건강식품인 것이다.

일본은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긴 장수국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다시 47개 자치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수명을 누리는 곳이 오키나와 지방이다.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장수의 원인 중의 하나가 다른 지방보다 많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이었다. 돼지고기는 장수식품인 것이다.

돼지를 키우는 양돈산업은 농업중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쌀농사 다음으로 큰 농업분야

이며 보다 규모화, 고도의 기술지향화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농민들이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밝은 희망을 기대하는 산업이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세계기록을 몇가지 살펴보면,

- 돼지의 평균수명은 약 15년이지만 27살까지 살았던 기록이 있다.
- 제일 체중이 무거웠던 돼지는 1,160kg였었다.
- 한번에 새끼를 가장 많이 낳았던 두수는 34마리.
- 수돼지 한마리가 24시간 내에 가장 많은 암돼지를 상대한 두수는 25두.
- 돼지의 최장거리 수영기록은 30km 